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11

www.ucac.or.kr

김 억 중 의 렉 처 콘 서 트 “Dream House”

건축과 음악, 공간을 노래하다

2014. 11. 6(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천원(유료회원 30%, 단체20%)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공간은 침묵하지 않는다.
잘 비우는 동시에 잘 채우는 일이 건축 언어의 본령이다.”

건축가 김억중의 『읽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건축가 김억중

Violinist 김미영

Guitarist 김정열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ontents

04

기획공연

_ 빈센트 반고흐

_ 드림하우스

_ 모닝콘서트 '와인에 빠진 클래식'

14

시립예술단 공연

_ 울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그리그 & 차이콥스키"

_ 울산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자란"

_ 울산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브람스 레퀴엠"

_ 울산시립시립교향악단
"2014 수능음악회"

기획전시

_ 올해의 작가 개인전 – 한진숙展

25

예술을 말하다

_ 예술축제를 찾아서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7)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공연·전시가이드

_ 11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11월호

통권 179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 · 편집 박용하 · 이미경

편집 박용운,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 · 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춤추는 별을 그린 화가, 그가 들려주는 달과 별의 하모니

Musical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희망의 별을 그린, 빈센트 반 고흐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화가 반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평생에 걸쳐 남긴 약 700여 통의 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이 작품은 그의 삶과 사랑 그리고 꿈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그의 편지를 통해 '미치광이 화가' 가 아닌 인간 반 고흐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수식어로 고흐를 이야기 하지만 사실 그 역시도 지금의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고, 지금의 우리처럼 '언젠가' 를 꿈꾸는 한 사람이었음에 주목하여 이야기를 펼쳐낸다.

구글 아트프로젝트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림 BEST10' 에 「별이 빛나는 밤」, 「해바라기」등 4개의 작품을 올리며 명실상부 최고의 화가임을 증명한 '빈센트 반 고흐' 는 살아생전 자신이 그린 2000여 점의 작품 중 단 한 점의 유화밖에 팔지 못한 시대에 인정받지 못한 화가였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림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열정의 화가였다.

이제는 그가 세상을 떠난지 200년이 흘렀지만, 가수 돈 맥클린의 빈센트, 르노삼성의 아트컬렉션과 현대차의 고흐 아트카 등 다양한 장르와 분야를 통해 우리는 여전히 '빈센트 반 고흐' 를 만날 수 있다. 그가 사람들에게 꾸준히 사랑 받는 이유는 '빈센트 반 고흐' 가 남긴 그림과 편지들을 통해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공감할 수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보편적 감수성을 가는 최고의 글로벌 콘텐츠 이기 때문이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까지 그림으로 승화시키며 그 안에 사람과 희망을 그려 넣은 고흐의 내면의 이야기를 통해 지쳐있는 지금의 우리에게 희망을 선물한다.

그가 들려주는 달과 별의 하모니

'빈센트 반 고흐' 의 명작을 청각화 시켜줄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의 넘버가 벌써부터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가 가진 순수한 이미지와 털털하고 젊은 감성이 가득 묻어나는 습작과 초기작을 연상케하는 넘버들은 고흐가 가진 먹먹한 감성을 그대로 표현해내고 있다. 기존의 뮤지컬 음악과는 달리 어쿠스틱 기타와 업라이트 피아노를 중심으로 한 포크, 블루스 사운드가 주를 이루며 드럼의 사운드가 무게감을 더했다.

고흐의 열정과 현실적 고뇌를 고스란히 표현해 내기 위해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의 작곡 및 음악감독으로 선택된 뮤지션은 인디계에서 먼저 인정받은 선우정아이다. 마치 고흐의 인생처럼 '홍대 괴물' 이라는 수식어를 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괴물' 이라는 타이틀을 얻은 그녀는 2NE1, GD&TOP 앨범 프로듀싱에 참여하며 실력파 뮤지션임을 증명해보였다.

또한 고흐와 테오가 이끄는 남성 2인극이라는 강점을 살려 두 주인공이 단순한 배우가 아닌 뮤지션이라는 상상을 통해 음악적으로 이야기를 풀어내기 보다 자유로운 표현방식과 에너지를 통해 고흐의 그림과 그 안에 담긴 감정을 관객들에게 최대한으로 전달해낸다.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세계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 라는 콘텐츠, 그리고 작품의 색을 온전히 담아낸 음악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 공연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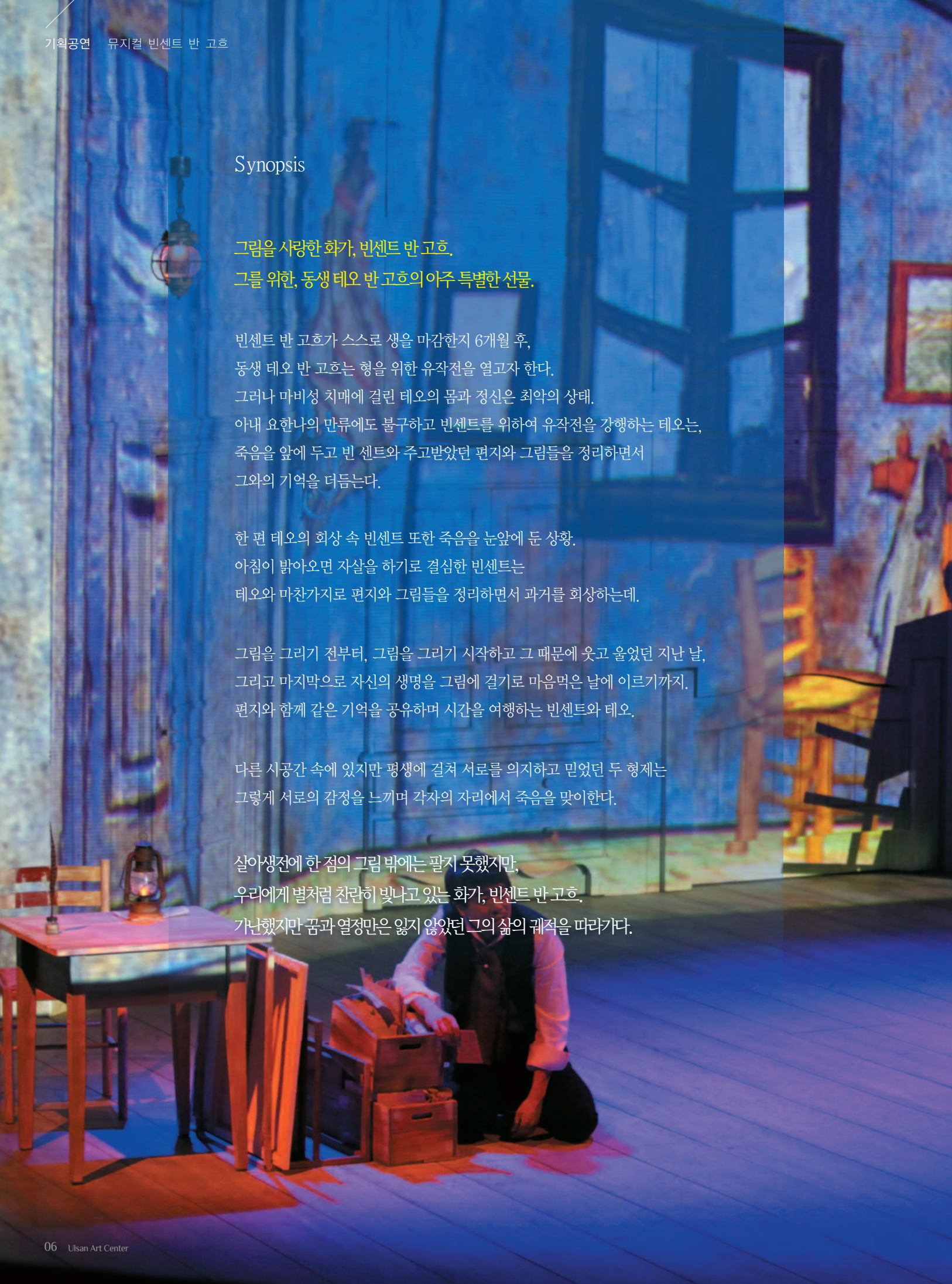
Musical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무대 위에서 살아 숨 쉬는 명작

단일 작가로서 신기록을 세우며 지난 10년간 최고의 복제품 1-2위, 구글 아트프로젝트에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그림을 그린 화가 '빈센트 반 고흐' 의 명작을 이제 공연장에서 만나볼 수 있다. 2D로 그려진 「별이 빛나는 밤」, 「꽃 피는 아몬드 나무」, 「고흐의 방」 등 의 고흐의 캔버스를 3D Projection Mapping 등의 영상기술을 통해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재구성해낸다.

기존 뮤지컬에서 사용되었던 영상들은 말 그대로 '배경' 에 불과했다. 하지만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는 영상이 단순히 '배경' 이 되는 것을 넘어서 2명의 배우뿐만 아니라 무대 위의 영상이, 그림자가, 또 다른 소도구가 모두 연기를 해 무대를 채워나갈 것이며, 고흐의 명작과 배우의 무의식적 공간표현까지로 그 역할을 넓혀낸다.

또한 그림 속에 공간을 재구성하여 실재하는 공간으로까지 확장시켜 생동감 있는 무대를 연출해 내며, 그림 속 인물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하나의 캐릭터가 되어 살아 움직이거나, 일상 풍경과 같은 모습을 구현해 관객들에 게 전시회장이 아닌 무대 위에서도 명작을 감상할 수 있는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Synopsis

그림을 사랑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그를 위한, 동생 테오 반 고흐의 아주 특별한 선물.

빈센트 반 고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지 6개월 후,
동생 테오 반 고흐는 형을 위한 유작전을 열고자 한다.
그러나 마비성 치매에 걸린 테오의 몸과 정신은 최악의 상태.
아내 요한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빈센트를 위하여 유작전을 강행하는 테오는,
죽음을 앞에 두고 빈 센트와 주고받았던 편지와 그림들을 정리하면서
그와의 기억을 더듬는다.

한 편 테오의 회상 속 빈센트 또한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
아침이 밝아오면 자살을 하기로 결심한 빈센트는
테오와 마찬가지로 편지와 그림들을 정리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는데.

그림을 그리기 전부터,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 때문에 웃고 울었던 지난 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생명을 그림에 걸기로 마음먹은 날에 이르기까지.
편지와 함께 같은 기억을 공유하며 시간을 여행하는 빈센트와 테오.

다른 시공간 속에 있지만 평생에 걸쳐 서로를 의지하고 믿었던 두 형제는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느끼며 각자의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살아생전에 한 점의 그림 밖에는 팔지 못했지만,
우리에게 별처럼 찬란히 빛나고 있는 화가, 빈센트 반 고흐.
가난했지만 꿈과 열정만은 잃지 않았던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Musical
빈센트 반 고흐
VINCENT van Gogh

Cast

Vincent Van Gogh 빈센트 반 고흐

"사람의 영혼을 담아내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나를 설레게 하는 것들이야"

깊이 있는 연기력과 호소력 짙은 목소리의 소유자

01_김보강

뮤지컬 〈우먼 인 블랙〉, 〈빨래〉, 〈나쁜자석〉, 〈모범생들〉,
〈올슉업〉, 〈마리아마리아〉 외
방 송 KBS2TV〈미워도 다시 한 번〉 외

Theo Van Gogh 테오 반 고흐

"형이 쓴 편지는 얼핏 보면 글씨 같은데, 이건 글씨가 아냐, 그림이야"

소극장과 대극장을 넘나드는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는 배우

02_김태훈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광화문 연가2〉 〈서편제〉,
〈바람의 나라〉, 〈노트르담 드 파리〉 외
연 극 〈밀당의 탄생 시즌2〉, 〈국화꽃향기〉 외

Performance Guide

2014. 11. 28(금) 오후 8시 / 11. 29(토) 오후 3시, 7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2만원(유료회원 30%, 초중고대학생 50%)
문의 문예회관 052-275-9623 www.ucac.or.kr /
인터파크 1544-1555 / www.ticket.interpark.com
등급 초등학생이상 입장가(권장 연령 만 11세 이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울산광역시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울산문화예술회관
후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김 억 중 의 렉 처 콘 서 트

"Dream House"

건축과 음악, 공간을 노래하다

Program

F. Tarrega (1852-1909)
〈Recuerdos de la Alhambra〉
Guitar : 김정열

J. S. Bach (1685-1750)
〈Chaconne〉
Violin : 김미영

W. A. Mozart (1756-1791)
〈Sonata in C major K.545 중 Andante〉
Music Lecture : 김미영

Le Corbusier (1887-1965)
〈Villa Le Lac〉
Architecture Lecture : 김억중

Jaque Ibert (1890-1962)
〈Entre'acte〉
Violin : 김미영, Guitar : 김정열

강의 및 진행 : 건축가 김억중
연주 : Duo A&U (Violinist 김미영, Guitarist 김정열)

젊은 시절 건축학도 김억중이 공간의 의미와 가치, 에너지로서의 실체를 생애 처음 온몸으로 생생하게 느꼈던 것은 뜻밖에도 Bach의 Chaconne 연주를 들었을 때다. 그는 그 때 건축과 음악이 모두 공간을 매개로 우리몸과 소통하며 독특한 감흥을 자아내는 언어라는 사실을 확연히 깨달았다. 요컨대 채워진 것과 비워진 것 사이의 교묘한 스밈과 짜임에서 오는 전율, 그것이 바로 두 예술이 공유하는 미학적 가치라는 점이다.

〈건축가 김억중의 Lecture Concert Dream House – 건축과 음악, 공간을 노래하다〉는 건축과 음악에서 공간의 본질적인 의미를 되묻고, 형태와 형태 사이, 소리와 소리 사이, 그 공간을 어떻게 디자인해야 건물(建物)이 건축(建築)이 되고 음(音)이 악(樂)으로 진화할 수 있는지를 사례를 들어 살펴본 후, 미적 감흥의 원인이 근본적으로 공간구성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공간은 침묵하지 않는다. 잘 비우는 동시에 잘 채우는 일이 건축 언어의 본령이다."

건축가 김억중의 『읽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01

Cast

01_건축가 김억중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졸업
-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 건축가 Diplome
- 충북대학교 대학원 공학박사
- 현재 한남대학교 건축과 교수
- 주요 저서 : 〈건축가 김억중의 읽고 싶은 집 살고 싶은 집〉, 동녘, 2003〈나는 문학에서 건축을 배웠다〉, 동녘, 2008
- 주요 전시
  제1회 Solo Exhibition, 아주미술관, '기호의 힘' (2004)
  제2회 Solo Exhibition, 대전 KBS홀, 이안 갤러리, '모델하우스' (2007)
  제3회 Solo Exhibition, 이안갤러리, '애물단지' (2010)
  제4회 Solo Exhibition, 갤러리 PEN, '愛物과 碍物사이" (2011)
  제5회 Solo Exhibition, 갤러리 BIBI Space, '애오려전' (2014)
- 주요 작품 : 유성구문화원(2002) / 아주미술관(2003) /
  대전 엑스포 무빙쉘터, 미디어 큐브 및 야외공연장 (2011) 등

02

| Duo A&U |

02_Violinist 김미영

- 스위스 Geneve 국립음악원 디플롬 및 최종학부 졸업(Prix de Virtuosite 수상)
- 스위스 Bern 국립음악원 최종학부 졸업 (Solisten Diplom)
- 프랑스 Metz 대학 및 Sorbonne 대학원에서 음악학 전공
- Camerata Suisse Romande, Suisse Bern Symphony, 금호현악사중주단 제1바이올리니스트, 화음챔버 등의 단원 역임
- 대전시립교향악단 악장 역임

03_Guitarist 김정열

- 한국예술종합학교 수료
- 독일 Köln 음대 연주자과정(K.A) 졸업
- 네덜란드 Zuid-Nederlandse 음대 연주자과정(U.M1) 졸업
- 네덜란드 Zuid-Nederlandse 음대 최종학부(Postgraduate) 졸업

03

Performance Guide

2014. 11. 6(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천원(유료회원 30%, 단체20%)
문의 052-275-9623 www.ucac.or.kr
등급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세계음악기행 여덟 번째 이야기

2014 모닝콘서트 시즌7

와인에 빠진 클래식

와인과 클래식의 마리아주 (Mariage)

국내 최고의 와인 소믈리에 이승훈이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와인이야기.
그리고 소프라노 서운정, 피아니스트 이예슬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선율의 클래식 콘서트

와인의 상식과 매너

어렵고 복잡한 와인의 종류, 생산지, 포도의 품종을 알기 쉽게 설명.
재미있게 배우는 와인매너

관객과 소통하는 실연 프로그램

와인 코르크 오픈, 디캔팅 시연 등 관객과 소통하는 다수의 실연 프로그램

Program

Carlos Gardel Por Una Cabeza "여인의 향기"	피아니스트 이예슬
와인 개론, 상황에 맞는 와인의 매너	소믈리에 이승훈
Ennio Morricone Nella Fantasia "넬라 환타지아"	소프라노 서운정 & 피아니스트 이예슬
Leonard Bernstein I Feel Pretty "아이 필 프리티"	소프라노 서운정 & 피아니스트 이예슬
와인 테이스팅 방법, 화이트와인과 클래식 음악의 매치	소믈리에 이승훈
Edith Piaf La Vie En Rose "장미빛 인생"	소프라노 서운정 & 피아니스트 이예슬
Edith Piaf Hymne A L'amour "사랑의 찬가"	소프라노 서운정 & 피아니스트 이예슬
디켄팅 방법, 레드와인과 어울리는 피아노 연주와 매치, 와인 재테크	소믈리에 이승훈 & 피아니스트 이예슬
Giuseppe Verdi Brindisi "축배의 노래"	소프라노 서운정 & 피아니스트 이예슬
Edwardo Di Capua O Sole Mio "오 솔레 미오"	소프라노 서운정 & 피아니스트 이예슬

프랑스 농식품수산부(MAAP)가 주최하고 프랑스 농식품 진흥공사(SOPEXA)가 주관하는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11, 2012년 연속 우승한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 이승훈이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와인 이야기 그리고 미모와 실력을 겸비한 소프라노 서운정과 피아니스트 이예슬이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멋진 노래를 들려주는 콘서트가 펼쳐진다. 어렵고 복잡한 와인의 종류, 생산지, 포도의 품종, 매너들을 알기 쉽게 설명해 관객들이 와인을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안내한다. 또한 소개하는 와인과 잘 어울리는 클래식, 샹송, 재즈, 뮤지컬 넘버 등 다채로운 음악들을 함께 들려주는 와인과 음악의 환상적인 마리아주(Mariage)가 펼쳐진다.

01_소믈리에 이승훈

프랑스 농식품수산부(MAAP)가 주최하고 프랑스 농식품진흥공사(SOPEXA)가 주관하는 〈한국 소믈리에 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2011년, 2012년 연속 우승한 국내 최고의 소믈리에. 와인 비스트로 VINAFO의 오너 소믈리에이며, 미국와인교육자협회(Society of Wine Educator)에서 인증하는 와인자격증을 취득하였고, 현재 양산대학교 관광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한, 프랑스 보르도협회 공식인증강사로서 보르도 〈에꼴뒤뱅〉 강의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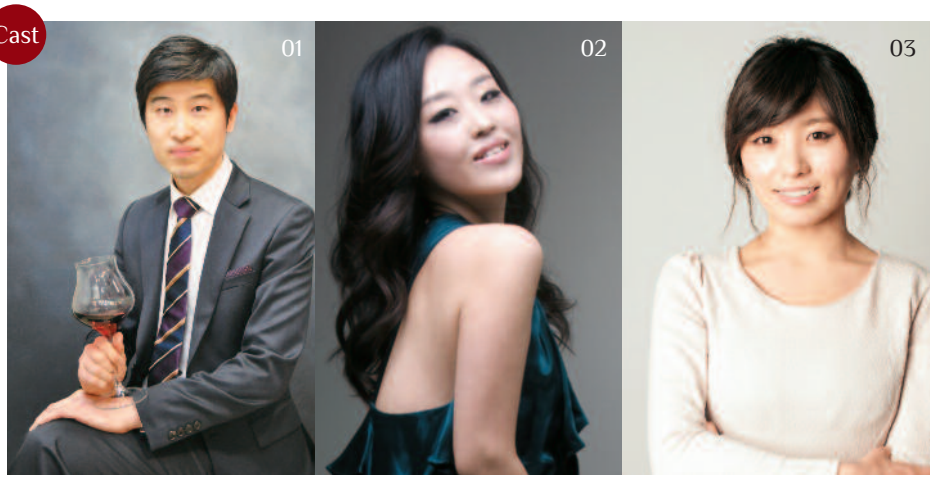
02_소프라노 서운정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성악과 예술사를 졸업하고, 독일 Freiburg 국립음대 오페라과를 최우수로 졸업했다. Freiburg 시립극장 게스트 솔리스트를 역임하였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갈라 콘서트에 초청받았다.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 〈이 도메네오〉, 〈돈 죠반니〉, 〈코지 판 투테〉, 〈사랑의 묘약〉 등 다수의 오페라에 주역으로 출연하였으며 국내외의 독창회 및 초청 연주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성악과에 출강 중이다.

03_피아니스트 이예슬

추계예술대학교 피아노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전문사를 수료하였다. Spain Tenerife International Music Academy Diplom 졸업하였고, 〈팔리아치〉, 〈라보엠〉, 〈사랑의 묘약〉, 〈코지 판 투테〉 등 여러 오페라와 다수의 기획연주의 반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세종대학교, 선화예중,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출강 중이다.

Cast



Performance Guide

2014. 11. 25(화)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000원(회원 30%, 단체 20%)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01

02

01_**김홍재** 지휘 02_**임효선** 피아노

Performance Guide

2014. 11. 7.(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임효선(피아노)
출연 예술감독 외 86명(협연자 포함)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제 1 7 8 회 정 기 연 주 회

'그리그 & 차이콥스키'

그리그 노르웨이 댄스

1881년에 작곡한 것으로 민족색이 짙은 작품이다. 모두 4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4곡 모두 2박자이며 중간에 트리오를 가진 세도막형식으로 작곡되어 있다. 제1곡은 민요풍의 트리오가 있고, 제2곡은 알레그로(allegro)의 격렬한 무곡이 트리오로 연주된다. 제3곡은 조용한 민요풍의 트리오, 제4곡은 목동의 피리소리와 같은 오보에 독주로 시작되는 트리오가 있다.
이 곡은 뒤에 그리그 자신이 직접 피아노 독주용으로 편곡했고 다시 한스 지트에 의해 관현악용으로 편곡되기도 했다.

그리그 피아노 협주곡 a 단조 op.16

이 피아노 협주곡은 그가 25세 때의 작품인데. 여러 피아노 협주곡 중에서 가장 많이 연주되는 곡이다. 이 곡은 독특한 북구적인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화려하고 극적이다. 따라서 피아노의 연주 기교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겨 이 곡을 연주하고 있다.

여기서 피아노와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조화와 교묘한 표현을 볼 수 있으며 민족적인 정서를 가미한 맛이 난다. 그리하여 그의 순수한 서정미와 신선한 피아노의 작곡기교 등은 한스 폰 뷜로의 말과 같이 북구의 쇼팽이라 평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제 1악장 알레그로 몰토 모데라토a 단조 4/4 박자 소나타 형식.
처음에 팀파니가 음울한 징조를 예상하는 듯한 음을 낸다. 뒤이어 오케스트라가 힘차게 화음을 연주하면 피아노가 이 때 결렬한 음으로 시작된다. 무곡풍의 노르웨이의 테마가 나타나면 뒤이어 조용하고 서정적인 제 2주제가 연주된다.

제 2악장 아다지오 Db 장조 3/8박자. 복합세도막 형식.
북구적인 느린 템포의 조용한 선율이 연주되면 피아노로 부차 선율을 연주한다. 햇빛도 부드러운 북구의 맑은 가을 공기가 연상되는 악장인데, 우울한 중에서도 생명이 움직이고 있다. 화려하면서도 애조를 띤 정서를 보여주는데, 이 악장이 조용히 끝나면 계속 3악장으로 들어간다.

3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마르카토 a 단조 2/4박자 론도형식.
2악장의 기분과는 정반대로 격렬하고 힘차며 발랄한 곡이다. 향토색이 풍부한 힘찬 제 1테마가 피아노로서 강하게 연주된다. 흔히 노르웨이의 전설에 나오는 산사람이 난장이나 괴상한 아귀들과 춤추며 떠드는 것과 같은 기분이다.

차이콥스키 교향곡 제1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1번은 그의 첫 번째 대작으로, 전통적인 4악장 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전체적으로 교향시적 성격이 두드러져 있으며, 1악장과 2악장에는 표제가 붙어 있다. 그러나 이 곡의 표제는 어디까지나 암시적이며, 차이콥스키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작곡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부제 '겨울날의 환상'은 아마도 러시아의 눈 덮인 황량한 대지 위로 떠오르는 겨울 낮의 환상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작곡자는 이 곡에서 러시아의 동토, 자연에 대한 애착을 노래했다고 생각된다. 기법 면에서도 이 시기의 차이콥스키는 국민악파 사람들과 공통점이 있으며, 전곡을 흐르는 민요풍 선율, 특히 마지막 악장에서 혁명가의 사용은 민족주의 운동에 관심을 쏟던 초기 차이콥스키의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곡은 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졸업하고 모스크바 음악교실(모스크바 음악원의 전신)에서 교편을 잡게 된 1866년 봄에서 여름에 걸쳐 제1고가 완성되었다. 차이콥스키는 이 작품을 은사인 안톤 루빈스타인과 니콜라이 자람바에게 보였으나 두 사람으로부터 아주 차가운 평을 받고는 가을에서 겨울에 걸쳐 개정을 했다. 이것이 제2고이다. 이때도 연주를 허락받은 것은 2악장과 3악장뿐이었다. 하지만 그에게 호의를 보이고 있던 모스크바 음악원(그 해 9월에 개교)의 원장으로 취임한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의 지휘로 3악장이 그 해 12월에 소개되었고 이어 1868년 2월 15일 러시아 음악협회의 연주회에서 전곡 초연이 이루어졌다. 차이콥스키는 감사의 표시로 이 곡을 니콜라이 루빈스타인에게 헌정하였다.

차이콥스키가 다른 어떤 작품보다 이 곡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동생 모데스트는 말했는데, 1883년 후원자인 폰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차이콥스키는 "여러 면에서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이 곡은 나의 다른 성숙된 작품들보다 근원적인 요소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더 낫습니다"고 쓸 만큼 이 곡을 사랑했다.

1악장 : '겨울 여행의 몽상' Allegro tranquillo

먼저 러시아 풍의 제1주제가 플루트와 파곳에서 등장해 활기찬 리듬을 타고 흐른다. 마치 트로이카(세 필의 말이 이끄는 러시아 썰매)가 방울소리를 내며 눈보라를 가로지르며 달려 나가는 듯하다. 클라리넷으로 제시되는 제2주제는 한결 유려한 느낌으로 차이콥스키 특유의 우수를 머금고 있다. 때론 상쾌하고 때론 긴박하며 때론 신비로운 겨울날의 여행이 드라마틱하게 펼쳐진다.

2악장 : '황량의 땅, 안개의 땅' Adagio cantabile ma non tanto

약음기를 단 현악기들의 은밀한 합주로 시작되는 아다지오 칸타빌레의 느린 악장이다. 오보에에서 흘러나와 점차 현악기들로 번져 나가는 러시아 풍 선율이 사뭇 애절하면서도 감미롭다. 마치 안개가 피어오르듯 몽환적인 느낌으로 가득한 매혹적인 악장이며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호른 연주도 인상적이다.

3악장 : Scherzo. Allegro scherzando giocoso

2악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스케르초 악장이다. 세분된 바이올린 파트와 목관 사이를 오가는 주선율이 현의 피치카토와 어우러지며 경묘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자아내는 스케르초도 흥미롭고, 바이올린과 첼로가 표정 풍부한 선율을 춤곡 리듬에 실어 노래하는 트리오의 낭만적인 풍미가 일품이다.

4악장 : Finale. Adante lugubre – Allegro maestoso

비장한 느낌을 주는 느린 도입부로 시작한다. 이 부분에서 현악기에 흐르는 선율은 1861년 카잔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났을 때 불렸던 민요조의 노래를 차용한 것이다. 이 선율은 주부에서 제2주제로 다시 등장하는데 다분히 선동적인 느낌이다. 주부는 두 개의 박력 넘치는 주제를 바탕으로 하여 격정적으로 전개되는데 특히 재현부 이후의 흐름이 무척 이채롭고 인상적이다. 즉 제2주제가 재현되다가 말고 다시 도입부의 악상으로 돌아갔다가 점진적인 고조를 통해서 더욱 거창하고 눈부신 클라이맥스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Program

- **그리그 / 노르웨이 춤곡 작품 35 중 1곡**
  Grieg | Nowegian Dances Op.35 1st
- **그리그 / 피아노 협주곡 가단조 작품 16**
  Grieg |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in a minor, Op.16

- 휴 식 -

- **차이콥스키 / 교향곡 제1번 사단조 작품 13 "겨울의 꿈"**
  Tchaikovsky |
  Symphony No.1 in g minor, Op.13 "Winter Dreams"

울산시립무용단 제34회 정기공연

자란

살구꽃 연정의 애절한 사랑,
280년의 세월을 넘어
현대에 꽃피는 자란의 사랑!

예술감독 **김상덕**

대 본 **박용하**

작 시 **박종해**

특별출연 **김미자**

14일 주요배역

자 란 **노연정**

수 향 **김수진**

의 아 **류호정**

15일 주요배역

자 란 **이소연**

수 향 **오수미**

의 아 **김미정**

그외 주요배역

문연일 **최형준**

정경문부사 **박원우**

자 명 **김주현**

2014. 11. 14일(금) 오후 8시
15일(토)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할인_ 회관회원 30% 단체 20%(10인이상)

예매 및 문의_ www.ucac.or.kr, 275-9623~8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울산광역시사 민속편 제3장 구비문학 자란傳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모티브로 하여 울산의 문화 콘텐츠로 레퍼토리화 하였다.

이번 작품은 울산의 문화 상품 발굴 작업으로 울산을 배경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설화를 재조명하였다. 조선 영조 때 이야기로, 1725년 12월 30일에 태어나 비극적인 여인으로 생을 마감한 '자란(紫鸞)'이 이야기이다.

문화예술 특히, 공연예술은 현재성과 현장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역사를 검증하고 복원, 규명하는 책무가 학문의 논리라면 공연예술은 현대에 재창조되어 관객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자란의 애절한 사랑이 공연예술로 꽃 피워 질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Program

- **프롤로그** / 내 물빛의 사랑
  1장 | 살구꽃 향기로
  2장 | 아련한 그리움에..
  3장 | 길 떠나는 그대, 님이여!
  4장 | 불꽃은 바람에 휘날리며..
- **에필로그** / 살구꽃 연정

춤과 관현악,
그리고 합창의 총체극화된

교성무극(交聲舞劇)
대서사시 자란 紫鸞

01

02

03

울 산 시 립 합 창 단 제 9 2 회 정 기 공 연 브람스 「레퀘엠」

Brahms『Requiem』

Program

▪ Chor 합창	Seling sind, die da Leid tragen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 Chor 합창	Den alles Fleischm es ist wie Gras (모든 육신은 풀과 같고)
▪ Bariton-Solo und Chor 바리톤 독창과 합창	Herr, lehre doch mich, daß ein Ende mit mir haben muß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 Chor 합창	Wie lieblich sind deine Wohnungen, Herr Zebaoth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 Sopran-Solo 소프라노 독창	Ihr habt nun Traurigkeit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Chor 합창	Ich will euch trösten (너를 위로 하리)
▪ Chor 합창	Denn wir haben hie keine bleibende Statt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도성도 없고)
Bariton-Solo 바리톤 독창	Siehe, ich sage euch ein Geheimnis (보라 비밀을 말하겠노라)
▪ Chor 합창	Selig sind die Toten, die in dem Herren sterben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객원지휘자 민인기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도미하여 New York University에서 합창지휘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합창 최고의 명문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에서 합창지휘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북미 음악대학협의회와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며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바톤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다.

울산시립합창단 제92회 정기연주회로 준비하는 브람스 '레퀴엠'은 9월과 10월에 이어 세 번째로 기획하는 객원지휘자 연주회로 울산시민들에게 다양한 음악적 해석과 지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1_민인기 지휘자

지휘자 민인기는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작곡을 전공한 후, 도미하여 New York University에서 합창지휘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1990년 합창 최고의 명문인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USC) 합창지휘 박사과정에 입학하여 세계적인 합창지휘자 William Dehning 교수의 지도아래 합창지휘법을, 합창지도법의 권위자인 David Wilson교수에게서 합창지도법 등을 수학하며, 합창지휘 전공으로 음악박사 학위를 받았다.

North American School of Music Association(북미 음악대학협의회)과 미주 한국일보가 선정한 "21세기를 이끌고 갈 차세대 지휘자"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며 섬세하고 세련된 합창음악, 그리고 깔끔하고 정확한 바톤 테크닉으로 인정받고 있다. 프리마돈나 앙상블, 광주, 고양, 원주, 청주, 당진, 부천, 안산시립합창단 등을 객원지휘하였으며, 서울, 수원, 청주시립교향악단,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 프라하 심포니에타, 몰도바국립방송교향악단, 키에프 방송교향악단 등 유수의 교향악단을 협연 지휘하여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영국합창지휘자협회, 독일 퀠른 국립음대,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초청으로 연주회와 지휘 및 강의를 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스위스 로잔국립음대 초청으로「한국합창음악의 전통과 발전」이란 주제로 강의를 하였다. 호남신학대학교, 단국대학교 음악대학교수를 역임하였으며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최정상의 프로합창단인 수원시립합창단의 음악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세계 정상의 합창단' 그리고 '최고의 합창음악'을 위해 단원들과 함께 수원시립합창단만의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02_정록기 바리톤

한양대 음대와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을 졸업하였다. 1992년 뮌헨 ARD 국제콩쿨에 입상하고 93년 독일 슈만 국제콩쿨, 94년 독일 볼프국제콩쿨 등을 우승 하였다. 베를린 아들러 매니지먼트 소속으로 베를린 필하모니, 런던 위그모어홀, 에딘버러 페스티벌,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보우,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페스티벌, 볼로냐 페스티벌, 라디오 프랑스 페스티벌 등 유럽 전역과 캐나다 일본 등지의 유명 연주단체와 협연하였다. 톤 쿠프만, 토마스 헹엘부로크, 헬무트 릴링, 라파엘 프뤼베크, 페터 슈라이어, 마사아키 스즈키 등의 거장 지휘자와 어윈 게이지, 하트무트 홸, 율리우스 드레이크 등의 저명 피아니스트들을 파트너로 연주하였다. 그의 독창회와 연주들이 유럽 주요방송국을 통해 중계되었으며 다수의 CD가 발매되었다. 2007 일본 문화청 주관 예술상 음악부문 대상을 수상하였고, 국내 예술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훈하였다. 국내에서 다수의 독창회와 서울시향, KBS교향악단을 비롯하여 주요 시립교향악단과 국, 시립합창단과의 협연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독일 칼스루에 국립음대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한양대학교 교수로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03_김방술 소프라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및 대학원 졸업
- 미국 맨하탄 음대 대학원 졸업(full scholarship)
- 미국 줄리아드음대 오페라센터(JOC) 졸업
- 국립합창단 단원 역임
- 뉴욕 퀸즈 오페라콩쿨 1위, 미국 메트로폴리탄 콩쿨 지역우승을 비롯하여 리더크란츠, 중앙, 베르시모 오페라 콩쿨 등 다수 입상
- 오페라 〈춘희〉 〈라보엠〉 〈마술피리〉 〈쟌니스끼끼〉 등에 주역으로 출연
- 오라토리오 헨델의 〈메시아〉, 슈베르트의 〈G장조 미사〉, 구노의 〈장엄미사〉 베토벤의 〈합창교향곡〉, 칼 오르프의 〈까르미나부라나〉 등에 솔로 이스트로 출연
- 국내외에서 리사이틀, 콘서트, 오페라 등 100여회 연주
- 사사 : 이경숙, 박미애, 김용분, 이인숙, Marlena Malas, Stephen Smith
- 마스터클래스 : 루치아노 파바로티, 키리테 카나와, 토마스 햄슨, 리치아 알바네제
- 현재,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

Performance Guide

2014. 11. 20(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할인 적용)

지휘 민인기(수원시립합창단 음악감독)

협연 Sop. 김방술, Bar. 정록기

울 산 시 립 교 향 악 단 특별기획

2014 수능음악회

수능시험을 마친 울산지역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초대 공연임.
클래식 악기로 표현되는 실제 음악을 들려줌으로써, 클래식 음악에 대한 흥미유발과
학과 공부로 지친 수험생들에게 활력소로 작용.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 예정.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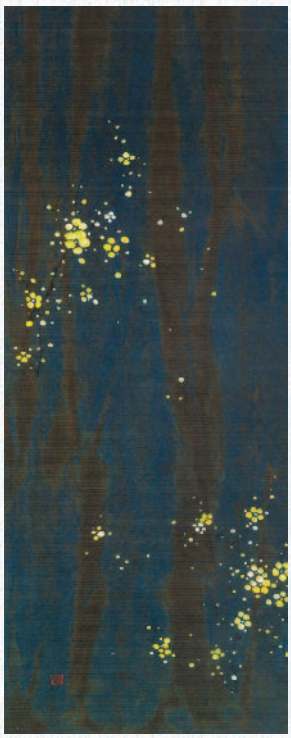
- 주페 / 경기병 서곡
  F. von Suppe : Light Cavalry Overture
- 마스카니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P. Mascagni : Intermezzo from Opera "Cavalleria Rusticana"
-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W. A. Mozart : Le Nozze di Figaro Overture
- 모차르트 클라리넷 콘체르토 n A Major, K.622 제2악장 - 협연 손기영
  W. A. Mozart : Clarinet Concerto in A Major, K.622 2nd. mov.
- 하이든 트럼펫 콘체르토 in Eb Major 제3악장 - 협연 한만욱
  J. Haydn : Trumpet Concerto in Eb Major, 3rd. mov.
- 피아졸라 리베르 탱고 - 협연 한만욱
  A. Piazzola : Liber Tango
- 글린카 루스란과 루드밀라
  M. I. Glinka : Ruslan and Ludmila

송유진 부지휘자

Performance Guide

2014. 11. 19(수), 21(금)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전석 무료
(울산지역 내 고등학교 고3학년 학생 대상 단체 선착순 접수)
지휘 송유진 (부지휘자)



• 매화이야기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4

「11월의 작가 한진숙展」

한진숙 작가는 대한민국 신미술대전 국제미술상, 대한민국한국 인상, 대한민국예술인상, 국제문화예술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6대광역시 미술작가 초대전 등의 지역에서 전시활동 뿐만 아니라 한·중 미술교류전과 아시아 미술교육전 등의 글로벌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준비하며 "삶의 구체성을 통한 사유와 따뜻한 매향이 펼쳐지는 작품 속으로 안내하는 작업이 작가의 소임을 다하는 것이라 생각 한다."며 매화의 다양한 면모를 작품으로 선보인다.

친근한 광목소재와 감물과 쪽물염색을 이용한 천연소재로 다양한 소품을 만들고 그 위에 먹의 농담과 화려한 채색으로 매화를 생동감 있게 향기를 담아 표현하였다.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에 「11월의 작가 한진숙展」이 '매화 이야기'라는 테마로 11월 1일부터 3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쉼'에서 개최된다.

• 매화이야기

• 매화이야기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매화의 은은한 향기를 삭막하고 획일화된 고층건물의 도심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여 잠시나마 여유와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작가의 간절한 마음을 작품을 통해 전했다.

깊어진 가을에 11월의 한진숙 작가의 깊은 매향과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야외전시장의 다양한 조각 작품 감상과 붉은 노을의 즐거움을 함께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을 기대해 본다.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유망작가들을 발굴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 하고자 연중 상설기획으로 추진하는 시작된「올해의 작가 개인전」이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예술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라고 있다.

Exhibition Guide

11. 1(토)~11. 30(일), 30일간

갤러리 쉼

한진숙 Han, Jin-Suk

개인전 10회 (울산, 서울)

| 단체전 |

전국 6대광역시 미술작가초대전
평화아트페스티벌, 한국서예 여류중견작가 초대전
6.25전쟁 60주년 특별기획전, 코리아 아트 페스타전
한 · 중미술교류전, 아시아미술교류전
외 각종 초대. 단체전 다수

| 수 상 |

2012 미술교육상, 문화예술상
2011 대한민국신미술대전 국제미술상
2010 대한민국신한국인상 수상, 대한민국예술인상 수상
2009 국제라이온스 총재상, 국제문화예술상

| 심 사 |

2014 울산미술대전 심사위원
2011 대한민국평화예술대전 심사위원(서울)
청도소사랑미술대전 심사위원(청도)
2010 대한민국통일미술대전 심사위원(서울)
국제창작미술대전 심사위원(서울)
국제전통예술대전 심사위원(강원도)
2009 한국문인화대전 심사위원(부산)
현) 울산미술대전 부운영위원 및 초대작가
전국예술인연합회 울산지회장
평생교육진흥연구회 천아트 울산지부 회장
국제전통예술대전 초대작가 및 문인화분과 이사
대한민국 신조형미술대전, 한국문인화대전
모악서예대전, 인터넷서예문인화대전
영남미술대전 초대작가, 죽농서단,
한국서화협회회원, 한국미술협회 분과위원,
백라 천아트 문인화화실 운영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Ⅶ)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11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Rock Werchte

벨기에에는 맥주랑 와플만 있다고?
록 워히터(Rock Werchter)도 있습니다!

● 글 **윤하정** KBS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휴학 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요즘 세계의 젊은이들이 하나의 현상에 대해 갑론을박 토론하는 TV 예능 프로그램이 큰 인기죠? 피부색도, 모국어도 다양한 그들이 우리나라에 살면서 우리말로 얘기하고 있으니 가끔은 기가 막히곤 합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에서는 각각 자국의 문화를 한국 문화와 비교할 때가 많아 저는 꽤 재밌게 시청하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중국, 이탈리아, 프랑스 등 문화 강국을 비롯해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강국 출신들이 있다 보니 자국의 자랑거리를 얘기할 때면 벨기에에서 온 친구는 '맥주와 와플'만 언급되며 놀림감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면 가끔 옆에서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록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아니 록페를 좋아하는 페스티벌 고어들에게 벨기에는 꼭 한 번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록페스티벌, '록 워히터(Rock Werchter)'가 매해 여름 벨기에에서 열리거든요. 자,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팬들이 찾고 있는 〈록 워히터〉 함께 가보실까요?

유럽 5대 록페스티벌, 록 워히터(Rock Werchter)

〈록 워히터(Rock Werchter)〉는 벨기에는 물론 유럽을 대표하는 록페스티벌로, 매해 여름 나흘 동안 열립니다. 대학도시로 유명한 루뱅(Leuven) 인근의 워히터(Werchter)라는 지역에서 열리는데요. 지난 1976년 시작돼 지금은 영국의 〈글래스톤배리 페스티벌(Glastonbury Festival)〉, 덴마크의 〈로스킬데 페스티벌(Roskilde Festival)〉, 헝가리의 〈시게트 페스티벌(Sziget Festival)〉과 함께 유럽 5대 록 페스티벌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나머지 한 자리를 놓고 박빙인지 매체마다 언급하는 페스티벌이 다르네요.). 초기에는 하루 일정으로 진행됐던 페스티벌은 점점 기간을 늘려 2003년부터는 나흘 일정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무대는 달랑 3개 정도. 다른 록페스티벌에 비해 규모가 크지는 않은데요. 하지만 막강한 라인업으로 나흘 동안 페스티벌 사이트를 찾는 관객은 해마다 십만 명을 넘어섭니다. 1일권 티켓 가격이 10만 원을 훌쩍 뛰어 넘고 4일권은 30만 원을 웃도는데, 여기에 캠핑까지 하게 될 경우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찾고, 또 해마다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되는 걸 보면 그 인기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록 워히터〉를 살펴보면 2011년에는 콜드 플레이(Coldplay), 린킨 파크(Linkin Park), 킹스 오브 리온(Kings of Leon), 케미컬 브라더스(The Chemical Brothers), 2012년에는 레드 핫 칠리 페퍼스(Red Hot Chili Peppers), 더 큐어(The Cure), 가비지(Garbage), 저스티스(Justice), 2013년에는 블러(Blur), 그린 데이(Green Day), 더 내셔널(The National), 그리고 올해는 펄 잼(Pearl Jam), 메탈리카(Metallica), 악틱 몽키즈(Arctic Monkeys), 플라시보(Placebo) 등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야말로 부러운 라인업이네요. 특히 같은 주에 영국의 글래스톤베리와 덴마크의 로스킬데 페스티벌이 함께 열리기 때문에 뮤지션들을 공유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제로도 라인업은 상당히 겹치는 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최근 〈록 워히터〉 측은 2015년 페스티벌은 일정을 한 주 앞당긴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는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열립니다. 아직 라인업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다른 록페스티벌보다 좋은 라인업을 선점할 수는 있을 것으로 예상되네요.

〈록 워히터〉 가고 싶다?!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가능한 요즘 같은 세상에 유럽에서 열리는 록페스티벌이라도 참여하기도 예전보다 수월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들 주요 록페스티벌은 대부분 도심에서 상당히 벗어난 곳에서 열리고 캠핑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 머나먼 한국에서 찾아가기까지는 큰 결심과 각오가 필요한데요. 거리도 거리지만, 비행기 표에 페스티벌 티켓, 숙식, 페스티벌 사이트에도 널려 있는 맛 좋은 맥주까지 섭렵하려면 1년짜리 '유럽 록페 찾아가기 적금' 정도는 들어둬야 실행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겁니다. 라인업은 보통 한 해 전 연말부터 오픈이 되고, 티켓 예매도 가능합니다. 일찌감치 티켓이 매진될 때도 있지만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으면 연락이 올 때도 있습니다.

〈록 워히터〉의 좋은 점은 1일권도 판매한다는 것이죠. 〈글래스톤베리 페스티벌〉처럼 사흘 '감금'은 아니라서 티켓 가격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캠핑에 취약하거나 사흘 동안 대자연에서 '먹고 자고 배설하는 것'에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루뱅을 비롯한 페스티벌 사이트 인근에 숙소를 잡기는 하늘의 별 따기여서 이 또한 잘 해결해야 하는 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티켓 가격이 비싼 〈록 워히터〉는 대신 벨기에 내에서는 워히터까지 오고가는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자, 일단 비행기를 타고 벨기에로 간다고 가정해 볼까요?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에는 두 개의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주로 국적 항공사들이 취항하는 브뤼셀 공항과 저가 항공사들이 이용하는 샤를루아 공항이 있습니다. 두 곳에서부터 루뱅까지 기차를 이용할 경우 기차 예매 사이트에서 워히터 티켓에 적힌 코드를 넣으면 무료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는 겁니다. 또 루뱅에서 워히터까지는 무료 페스티벌 셔틀버스가 15분에서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요. 우리나라에서 바로 찾아가는 길이라면 벨기에는 직항편이 없기 때문에 보통 네덜란드로 입국해서 기차를 타고 루뱅까지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벨기에 안에서는 어디서든 페스티벌 사이트를 찾아가는 편과 워히터에서 어디론가 나가는 편 기차를 한 번씩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니 본인의 여행 루트에 맞게 머리를 잘 굴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벨기에에서 즐길 수 있는 것들

유럽지도를 보면 벨기에 주변으로 독일, 파리, 네덜란드, 영국 등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냥 여행을 간다면 볼 것 많은 나라들에 벨기에는 정말이지 스쳐가는 곳이 되기 쉬운데요. 나흘 동안 페스티벌 현장에서 내달리다 지친 심신을 달래기에는 사실 벨기에의 조금은 한적한 분위기가 훨씬 안락합니다. 수도 브뤼셀은 루뱅에서 기차로 20~30분 거리에 있는데요. 브뤼셀에 가면 누구나 가는 곳, 바로 그랑플라스(La Grand-Place)가 대표적인 관광 포인트입니다. 이곳은 시청사, 왕의 집, 길드 하우스 등 17세기 후반 고딕과 바로크 양식 건축물들로 사방이 둘러싸인 광장입니다. 생각 없이 골목골목을 지나치다 갑자기 병풍처럼 드리운 건축물들을 만나면 그 화려함과 웅장함에 놀라게 되는데요. 대광장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규모는 작지만 이 아름다운 모습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야간조명이 가세하면 그 아름다움은 더하니 밤에도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야기자기하고 화려한 광장에서는 연중 다양한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데요. 〈록 워히터〉가 열리는 7월 초면 벨기에 민속 축제인 오메강(Ommegang) 페스티벌도 열립니다. 벨기에를 대표하는 퍼포먼스인 만큼 챙겨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벨기에하면 정말이지 맥주와 초콜릿, 와플을 빼놓을 수 없겠죠. 골목마다 들어찬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온갖 종류의 맥주를 파는데, 곳곳에 놓인 오묘한 빛깔의 맥주와 독특한 전용 잔을 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시간만 허락한다면 모두 마셔보고 사오고 싶은데 아쉬울 따름이죠. 벨기에에서 가장 가볼만한 여행지는 브뤼셀에서 기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브뤼헤(Brugge)라는 작은 도시가 아닐까 합니다. 북부의 베니스로 불릴 만큼 브뤼헤에는 작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수많은 운하가 운치를 더하는데요. 적당한 수의 관광객과 한가로운 도심, 고즈넉한 마을 풍경은 베니스보다 훨씬 정이 갈 정도입니다. 그래서인지 브뤼헤를 다녀온 사람들은 꼭 다시 가고 싶어 하더군요. 신혼여행을 가거나 며칠 푹 쉬고 싶다고요. 벨기에에서는 특이하게 토요일과 일요일 기차요금이 평일보다 저렴합니다. 아마도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유럽 내에서 인기 관광지는 아니지만 누군가 벨기에에 또 가고 싶은지 물어온다면 필자는 물론 오케이입니다. 좋아하는 맥주도 있고, 와플도 있고, 〈록 워히터〉도 있으니까요!

01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Ⅶ)

● 글 **송종건** 영국 런던 라반센터에서 무용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슈트라우스 작품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인 오페라를 살펴보자. 슈트라우스의 특징이 아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 초기작 '군트람'(1893), '화재'(1901)를 제외하고는, 그의 특징이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살로메'(1905)부터는 일련의 교향시들이 완성되고 난 이후부터 등장한다.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는 관현악의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의 음악적 기법을 완성하였다.

이제 슈트라우스는 그 관현악을 뛰어넘는 단계, 즉 성악이 포함된 관현악 분야만이 그가 이루고 싶은 음악 표현의 영역으로 남겨졌다. 일찍부터슈트라우스는 독창과 합창곡으로 성악분야에서도 서정성, 서사성 모두를 아우르는 작곡 능력을 입증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면 오페라로 그의 음악적 역량이 집결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미증유의 다양하고 재기 넘치는 교향시를 연이어 발표하여 화려한 각광을 받으면서 세기의 전환기에 슈트라우스는 이미 독일 음악계를 대표하는 대가가 되었다. 그러나 그런 슈트라우스도 오페라 작곡가로서 성공은 녹녹치가 않았다. '바그너'라는 거인이 오페라에 남기고 간 족적은 너무나 거대했다.

슈트라우스는 김나지움 시절부터 벌써 괴테의 징슈필 대본 '리라'에 대한 부수곡 작곡을 시도하는 등 오페라에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오페라 작곡가로서 출발은 다른 장르에 비해 상당히 늦었다.

오페라 '군트람' & '화재'

1894년 바이마르에서 초연된 그의 첫 오페라 '군트람'. 리하르트 슈트라우스가 대본을 직접 집필한 이 작품은 13세기 독일을 배경으로 '사랑을 통한 구원', 낭송조의 긴 음악, 긴 악구구조, 유도 동기, 관현악의 부각 등 소재와 음악 등 모든 면에서 바그너 풍이었다. 실패였다. 익살끼가 많은 슈트라우스는 후일 이 실패를 두고 가르미슈 산장 구석에 오페라 '군트람의 묘'까지 만들어준다. 하지만 '군트람' 초연 때 주인공 프라이힐트를 맡은 주역 소프라노 파울리네 드 아나와 4개월 후 결혼하여 평생 해로한다.

1901년 초연한 그 다음 오페라 '화재'는 에른스트 폰 볼초겐의 대본으로 작곡한 작품이다. 중세시대의 뮌헨을 배경으로 마치 슈트라우스의 교향시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와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섞어 놓은 듯 한 분위기의 작품이다. 극중 인물들은 바그너와 슈트라우스 자신의 모습이 은연 중에 투영되어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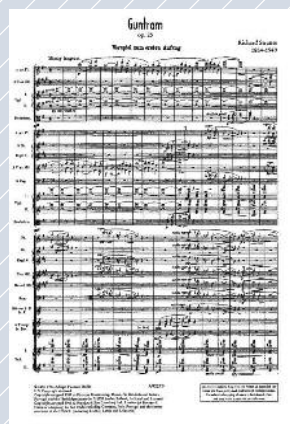
편협한 속물 근성을 익살이 가득한 언어의 유희로예술과 에로스의 끝없는 힘을 찬양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음란성을 빈정거리면서 넌지시 암시하는 내용의 볼초겐 대본은 고향 뮌헨의 보수적인 예술 풍토에 불만을 가진 슈트라우스의 마음에 들었다. 드레스덴 궁정 극장에서 초연은 말러 부부도 참석하였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 작품은 작곡가 자신의 자전적인 요소를 포함하여 풍자와 민속 음악적인 요소를 사용하면서 해학적인 스타일로 만든다. 이를 통해 선배 바그너를 극복하고 자신만의 독자적인 길로 나아가는 길을 닦게 된다, ,

오페라 '살로메'

일곱 베일의 춤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오페라 '살로메'는 성서를 소재로 한 작품이다. 살로메 이야기는 신약성서의 마테복음서와 마르코복음서에 기술되어있다. 성서 속

02

03

04

05

06

07

08

09

01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02 _ '화재' 포스터
03 _ 살로메 포스터
04 _ 굳트람 악보
05 _ 파울리네 드 아나 – 슈트라우스 부인
06 _ 화재의 대본가 , 볼초겐
07 _ 오스카 와일드
08 _ 오페라 살로메 공연 –1910년경
09 _ 헤로디아 왕비

에는 '살로메' 라는 이름은 나와 있지 않고 '헤로디아의 딸, 소녀' 라고 명명되어있다. 후대 유대 사가에 의해 헤로디아의 딸 이름이 살로메로 알려지게 된다. 헤로데스와 헤로디아, 그 딸 살로메에 관한 이야기는 많은 예술 작품의 소재가 된다.특히 세기말 탐미주의 작가로 이름을 떨친 오스카 와일드가 1891년 발표한 희곡 '살로메' 는 슈트라우스에게 직접적인 작품의 계기를 마련한다.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는 그 소재와 내용면에서 여러 문제가 있어 1896년 런던에서 초연은 무산된다. 우여곡절 끝에 같은 해 파리에서 간신히 초연에는 성공 하지만 그다지 호평을 받지 못한다, 와일드 생전에 '살로메' 가 무대에 오르는 것을 보지 못한다.

이렇듯 오스카 와일드의 '살로메' 가 상연금지 혹은 인기가 없었던 이유는 성서의 소재를 취하면서도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는 외설과 관능성이 짙었기 때문이다. 또한 연극의 길이가 하루 저녁에 상연하기에는 애매한 단막의 길이였다. 이 작품은 세심하고 간결한 연출과 무대가 필요한데 당시 유행하던 화려한 무대를 꾸며 오히려 천박해보였다. 연극으로 '살로메' 의 최초 성공은 막스 하인하르트가 연출하여 베를린 소극장에서 이루어진 1901년 공연이었다.

1903년 베를린의 막스 라인하르트 소극장 공연에서 연극 공연을 본 슈트라우스는 이 연극에 대해 깊은 감명을 얻게된다. 이어 슈트라우스는 독일어 번역 희곡을 가지고 막바로 작곡에 착수한다. 1905년 6월 총보가 완성된다. 공연에 참가하는 가수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작품 연습 과정에서 관현악과 독창 파트의 난해함으로 곡을 익히기가 힘들었고 '살로메' 역은 바그너의 드라마틱한 소프라노에 버금가는 성량이 필요했다. 소재와 내용의 도덕성에 대한 논란 등 연습하는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12월9일 드레스덴에서 에른스트 폰 슈프지휘 하에 드레스덴에서 초연을 하게 된다. 청중들을 환영 했지만 비평가들은 외설과 부도덕함에 대해 악평을 늘어놓았다. '살로메' 는 미풍양속을 헤치는 관능적이고 도착적인 내용 때문에 빈을 비롯한 각지의 극장에서 검열을 당하고 상연금지를 당했다. 허나 오페라 작곡가로서 슈트라우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명성을 높이는 확실한 계기가 된다. 이후 슈트라우스는 그때까지 창작의 중심이 되었던 교향시와는 점점 멀어지고 오페라로 중심축이 옮겨간다.

슈트라우스는 '살로메' 를 '오스카 와일드의 동명 문학작품에 의한 헤드비히 라흐만의 독어 번역에 의한 1막극' 이라고 칭하면서 오페라 혹은 음악극이라는 표현을 없앴다. '살로메' 는 아리아, 레치타티보, 대규모 합창이 포함된 전통적인 볼거리 풍부한 오페라가 아닌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후기 낭만주의 형식으로 바그너의 유도동기를 사용하고있다. 리하르트 슈트라우스는 지금까지 교향시에서 발휘되었던 서술력와 성격묘사 방법을 오페라에 적용시키고 있고 극단적인 반음계의 표현주의와 불협화음, 악기의 음색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한 대규모 관현악을 도입하여 새로운 형태의 작곡기법을 선보였다.

하지만 바그너의 음악극보다는 규모가 작고, 따로 대본을 집필한 것이 아니라 희곡을 가지고 바로 음악을 작곡하였다. 물론 라흐만의 독어 번역 전부에 음악을 붙인 것은 아니고 작곡가 자신이 작품의 근거에서 생략 , 단축,, 등장인물의 역할 교체, 각 역할의 분량을 조금씩 조정한다. 이는 음악 장르의 특성에 따라 그리한 것이고 본래 오스카 와일드의 작품의 느낌은 그대로 문학 오페라로서 매우 획기적인 작품이 탄생한 것이다. 성서의 내용과는 많은 부분이 상이하지만 오스카 와일드원작은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때까지 수많은 교향시 등에서 갈고 닦은 작곡 기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문학성 높은 텍스트로 응축한 음악 표현을 솜씨있게 혼합하여 세기 전환기 특유의 관능성과 탐미적 데카당스 분위기의 음악극을 만드는데 성공하였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얀 판 에이크의 '아르놀피니의 결혼'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번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도판 1

도판 1
얀 판 에이크, 〈아르놀피니의 결혼(The Arnolfini Marriage)〉, 1434, 목판에 유화, 82.2 × 60 cm, 런던 내셔널갤러리.

도판 2, 3, 4
〈아르놀피니의 결혼〉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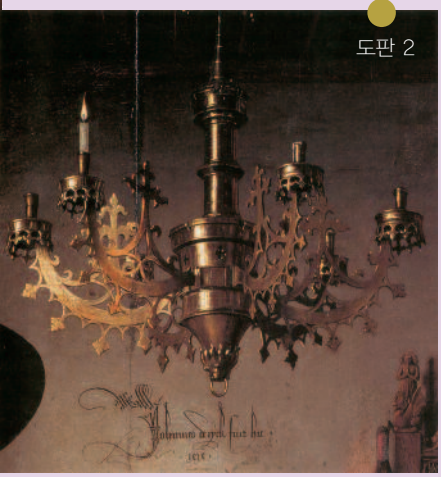
대개 연인들의 사랑의 결실은 결혼으로 표현됩니다. 결혼식이라는 절차를 통해 두 사람의 사랑이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고, 법적인 지위를 보장받게 되기 때문이지요. 두 사람이 만나 한 가정을 이룬다는 결혼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지만, 방식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결혼식은 한 시대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도 합니다. 유화 기법을 완성했다고 알려진 얀 판 에이크(Jan van Eyck)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식〉(도판1)은 서양 미술사에서 가장 유명한 결혼 그림 중 하나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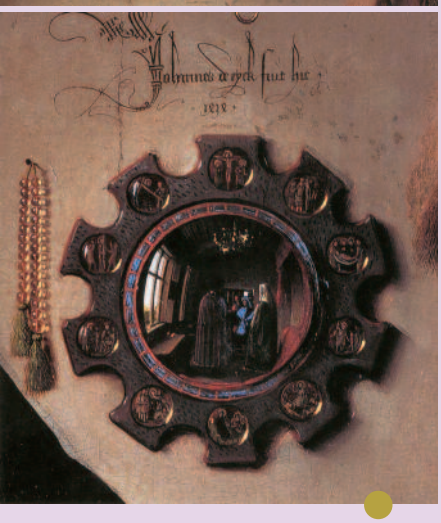
이는 서양 미술사에서도 가장 독특한 작품의 하나로 꼽히고, 수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당대 가정의 실내를 배경으로 하여, 당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림이 이렇게 주목을 받은 까닭은 무엇일까요. 남자가 한 손을 가슴 언저리에 들고 무언가를 서약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 이 작품이 결혼식을 그린 그림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화가는 그림 속에 숨겨놓은 여러 가지 힌트를 읽어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림은 한 가정의 부부 침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붉은 벨벳 시트가 덮인 침대와 의자, 바닥의 카펫과 거울, 황동 샹들리에 같은 사치품을 통해서 이 집의 주인이 부유한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내를 배경으로, 두 인물이 화면의 전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에 있는 남자의 얼굴은 다소 무뚝뚝해 보이지만, 표정과 태도에서 자신감이 배어 나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가장자리에 모피를 두른 고급스러운 외투는 그가 상당히 부유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이 그림의 주문자이자 주인공인 조반니 아르놀피니(Giovanni Arnolfini)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루카 출신으로, 값비싼 직물 사업을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고, 어린 나이에 당시 유럽의 주요 무역 도시 중 하나인 브뤼헤로 와 가문의 사업을 번창시켰습니다. 화면의 오른 편에는 푸

른 옷 위에 역시 모피로 테두리를 두른 녹색 외투를 입고, 머리에는 하얀 베일을 쓴 여인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반나 체나미(Giovanna Cenami)이고, 아르놀피니가 상처 후 맞아들인 두 번째 부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부인은 다소곳한 자세로 남편을 바라보며 오른 손을 그에게 내밀고, 남편은 왼손을 내밀어 그 손을 받치고 있습니다. 부인은 다른 한 손으로는 옷자락을 끌어올려 배에 가져다 대고, 남편은 오른손을 세워 올려 서약을 하는 듯합니다.

대개 이 시대의 결혼이 교회를 배경으로 하는 것과 달리, 아르놀피니 부부의 결혼은 가정집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얀 판 아이크는 그림 속의 일상의 사물에다 여러 가지 종교적 의미를 숨겨 세속적 결혼에 종교적 상징성을 부여했습니다. 그림의 중앙, 부부의 사이에는 동그란 볼록 거울이 있는데 그 테두리에 있는 작은 둥근 원 10개에는 그리스도의 수난의 각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황동 샹들리에의 6개의 촛대 중 한 군데에만 초가 꽂혀 있고, 대낮인데도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도판2). 이는 플랑드르 지방의 결혼 풍습이라고 하는데, 마치 한 낮에도 불을 밝혀 두는 교회 안에서처럼, 이들의 결혼에 신성한 성령이 함께 함을 암시합니다. 또 창가를 보면 오렌지 몇 개가 놓여 있는데(도판3), 이는 오늘날 네덜란드에 해당하는 브뤼헤에서는 지중해 지역에서 수입하는 진귀한 수입 과일이었기에 아르놀피니의 부유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르놀피니의 고향인 이탈리아에서는 오렌지가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기에, 결혼을 축복하는 상징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으로 보면, 이는 원죄 이전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런 과일을 그림 속에 그려 넣음으로써 화가는 그림을 주문한 아르놀피니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동시에, 인간의 원죄와 구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도판 2


도판 3

도판 4

이 부부는 모두 가장자리에 모피를 두른 고급 모직 의상을 입고 있는데, 신발을 벗어 놓아 의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신랑 옆에는 그의 나막신이, 두 사람의 사이 의자 아래에는 부인의 붉은 샌들이 보입니다. 우리와 달리 실내에서도 신발을 신는 서양 문화에서 신발을 벗는 행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구약의 〈탈출기〉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라고 한 대목에서 유래했고, 따라서 신발을 벗고 있음은 그곳이 성스러운 곳임을 말해줍니다. 거울 옆에 있는 투명한 묵주는 순결을, 신부 앞에 있는 개는 결혼 생활에서의 서로에 대한 충실함을 상징합니다. 침대 기둥에는 출산과 어린 아이의 수호성인인 마르게리타 성녀가 조각되어 있어, 결혼 생활에서의 다산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이런 다양한 숨은 상징을 통해 얀 판 에이크는 상인 계급 남녀의 세속적인 결혼에 종교적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는 인물들의 얼굴은 물론, 의상과 침대 시트, 카펫 같은 여러 가지 직물의 질감, 거울과 샹들리에의 차갑고 매끄러운 표면, 심지어 강아지의 털까지도 생생하게 표현해낸 화가의 섬세한 필치를 통해 더욱 강조됩니다.

그림의 한 가운데 있는 볼록 거울은 이 그림에서 가장 독특한 부분입니다(도판4).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람이 거울에 반사되어 보여 이 방에 부부 이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들 중 한 사람은 이 결혼식을 주제하는 사제일 것이고, 나머지 한 사람은 아마 얀 판 에이크 자신일 것입니다. 화가 자신이 이 결혼식에 있었음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그림 위에는 라틴어로 "얀 판 에이크가 여기 있었다(Johannes de eyck fuit hic)"라고 쓰고, 1434년이라는 연도까지 기입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것을 보고 있는 하느님의 눈 같은 볼록 거울에다 얀 판 에이크는 자신의 모습을 그려 놓았고, 이를 통해 증인이자 화가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이는 우주의 창조자의 신과, 예술을 통해 신의 창조를 흉내 내는 인간 예술가 사이의 전통적인 유사점을 암시합니다.

Peer Gynt & Troll

Edward Hagerup Grieg

● 글 **김수연**

KBS 울산라디오 「러브 클래식」 등, 라디오 · 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함 께 하 는 음 악 이 야 기

페르귄트와 트롤

북유럽으로 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트롤 인형을 기념품이라며 선물로 준 적이 있다. 영화 '해리포터' 나 '반지의 제왕' 에서 트롤을 본 적은 있지만 괴물로 묘사되는 극 중 캐릭터로 인해 그다지 호감이 없었던 터라 무슨 이런 선물을 주나 투덜거렸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퇴화된 거인이다. 손가락과 발가락이 4개에 꼬리가 있고 겉모습은 대게 못생기고 괴기스럽지만 코가 길어 수프를 끓일 때 국자 없이 코로 젓기도 한다는 우스갯소리에 피식 웃게도 되는 친근한 캐릭터이기도 하다. 더구나 머리를 쓰다듬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미신이 있어 관광객들에게는 꽤 많은 사랑을 받는 기념품인데 그걸 모르고 선물을 괄시한다며 친구한테 눈 흘김을 당했던 추억이 있다. 그러고 보면 노르웨이의 국민주의 작곡가 에드바르드 하게루프 그 리 그 (Edvard Hagerup Grieg, 1843~1907)가 고향 베르겐으로 돌아가 피오르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집을 짓고 붙인 이름이 '트롤하우겐(Troldhaugen)' 이다. 트롤이 사는 언덕이라는 의미인데 보기에 따라서 선하기도 또 악하기도 한 트롤을 왜 그리그가 자신의 집 이름에 붙였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그것은 작품 '페르 귄트(Peer Gynt) 모음곡' 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그의 대표작 '페르 귄트 모음곡' 의 스토리는 간단하다. 옛날에 노르웨이의 어느 산골마을에 부유한 농가가 있었다. 그 집에 페르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집안이 몰락하자 어머니는 아들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주길 바랬다. 하지만 아들은 모험심이 큰 공상가였던 터라 자신을 유혹하는 마왕과 손을 잡고 마왕이 제시한 일확천금을 노리며 고향을 떠났다. 페르에겐 헌신적인 연인 솔베이그가 있었지만 돈에 눈이 먼 페르에게 그녀가 안중에 있을 리 없었고 그는 세계를 떠돌며 마왕의 딸도 유혹을 하고 남의 아내도 납치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추장 딸에게 수작을 걸며 방탕한 삶을 살았다. 이 과정에서 트롤은 극 전반에 걸쳐 아주 미개하고 공격적인 괴물로 묘사되면서 매우 두려운 존재로 나오는데 페르가 고향으로 돌아오던 길에 거센 풍랑을 만나 모든 걸 잃게 되고 간신히 목숨만 부지한 채 백발이 된 솔베이그의 품에 안겨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페르가 삶의 패배자가 돼 솔베이그의 품으로 돌아갔을 때 자신이 꿈꾸던 왕국이 솔베이그의 품이었다는 사실을 극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존재가 트롤이었다. 그러기에 페르에게 솔베이지의 품이 삶의 안식처였듯 그리그도 고향 베르겐의 집이 솔베이그의 품 같은 곳이길 바라며 자신의 집을 '트롤하우겐' 이라 이름 짓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그의 '페르귄트 모음곡' 은 '인형의 집(Et Dukkehjem)' 으로 유명한 노르웨이의 극작가 헨릭 입센(Henrik Ibsen, 1828~ 1906)의 의뢰로 만들어진 극음악이다. 지금은 자신의 명성을 빛내는 대표작으로 자리하고 있지만 그리그는 작업 초기 이 음악 작업을 썩 내켜하지 않았다고 한다. 주인공 페르 귄트가 몽상가이고 모험가여서 노르웨이부터 이집트, 모로코, 아라비아 사막까지 광활한 땅을 배경으로 스토리를 극화하는 것도 부담이었고 극 속에 트롤과 요정 등의 비현실적인 존재들을 포함해 100여명에 달하는 등장인물이 나오는 것이 서정적인 음악을 하는 자신의 음악 스타일과 맞지 않을 것 같아 자신 없어 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우였고 이 작품은 초연부터 크게 성공을 했다.

그리그는 자신이 고른 8곡을 극 순서와 상관없이 '페그 귄트 모음곡' 1,2로 나누어 놓았다. 때문에 앨범 전체가 쭉 이어지는 느낌은 덜하지만 그래도 한 곡 한 곡 다른 매력을 발산하기에 스토리를 떠올리며 감상하는 재미가 크다. 1모음곡(Op.46)의 첫 번째 곡으로는 모험가 페르가 모로코에 당도해 맞이한 아침 풍경을 음악으로 묘사한 '아침의 기분(Morgenstimmung)' 이 흐르고, 이어 담담하지만 깊은 슬픔과 죽은 이에 대한 애도와 존경이 담겨 있는 '오제의 죽음(Ases Tod)이 나온다. 페르가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보는 순간의 음악인데 ' 페르귄트 모음곡 ' 전곡 중에서도 가장 슬픈 곡이다. 이어 두 곡의 춤곡이 흐르는데 아라비아의 추장 딸이 추는 ' 아니트라의 춤(Anitras Tanz) '과 2막에 등장하는 약간 음침한 듯한 트롤의 선율 ' 산속 마왕의 동굴에서(In der Halle des Bergkonigs) '가 수록돼 있다. 그리고 2모음곡(Op.55)에서는 ' 신부의 약탈과 잉그리드의 탄식(Der Brud-erovet Ingrids Klage) ', ' 아라비아의 춤(Arabischer Tanz), '페르귄트의 귀향(Peer Gynts Heimkehr)' 에 이어 '페르 귄트 모음곡' 의 백미와도 같은 곡 '솔베이그의 노래(Solveigs Lied)' 가 마지막을 장식한다. '솔베이그의 노래' 는 솔베이그가 늙고 지친 몸으로 천신만고 끝에 돌아온 페르에게 불러주는 자장가로 결국 페르가 이 곡을 들으며 죽음을 맞이하는데 한평생 페르를 향한 그리움을 간직한 채 살아온 솔베이그의 마음의 느껴져 무척 애틋하면서도 아름답다.

사실 여자의 입장에서 솔베이그의 인생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난다. 한평생 한 남자를 기다린 솔베이그의 사랑을 두고 미련하다 바보같다는 생각부터 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잠깐씩 썸만 타고 버리는 일회용식 사랑이 흔해진 세상이기에 그녀가 보여준 지고지순한 사랑, 희생이 뒷받침된 사랑에 박수를 보내는 마음도 적지 않다. 그리그의 '페르 귄트 모음곡' 이 지금까지 명곡으로 자리할 수 있는 건 페르 귄트의 욕망과 이기심에서 스치는 나의 모습을 읽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제5회 인사운드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토)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인사운드윈드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재즈, 가요 등 다양한 음악장르로 연주함으로서 울산시민 정서함양과 지방문화 예술발전에 기여

김미경 '소리 콘서트 VI'

공연정보 11. 2(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미경 판소리연구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화려한 겉치장이 아닌 알맹이가 가득한 예술문화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그 향기를 이끌어 내어 사랑하는 이웃과 음악을 함께 나누어 문화정신을 계승하고자 함

제3회 울산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4(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태화강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실버세대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적극적 사회봉사 참여를 목표로 창단된 울산 태화강합창단의 세 번째 정기연주회

울산, 그 아름다움의 향연

공연정보 11. 4(화)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재능시낭송협회 울산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제34회 울산예술제 개막선언 및 축하공연

2014년 울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5(수) 20: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가톨릭합창단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우리가 늘 가까이에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울산의 풍경을 시로 꾸며보는 시간을 만들었음

시노래투어콘서트 In 울산 울림 제11회 정기공연 '느리게 떠나는 시노래여행'

공연정보 11. 7(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문화예술창작 집단울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현재 울산에서 활동하는 6명의 시인을 선정 매회 초대작가와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울산에 관련된 시와 시노래 창작작업을 가지며 공연을 통해 울산시민들에게 선보임

제14회 울산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8(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매년 두 번의 정기연주회로 울산시민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

2014 청소년 어울림마당 폐막축제

공연정보 11. 8(토) 10: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공업탑청소년 문화의 집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2014 청소년 어울림마당 폐막식

제11회 프리모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9(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프리모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에 거주하는 초,중,고 학생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팀으로 청소년들의 정서함양 및 문화인으로 성장해 가는데 목적을 둠

제10회 정기공연 창작노래극 '꿈이 더 필요한 세상'

공연정보 11. 9(일) 16: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노래하는아이들 뚜버기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진정으로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을 공연을 통해 또한 영상을 통해 담아내고자 이번 공연을 기획

울산생활과학고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1(화)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생활과학고 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통클래식 음악과 무곡, 뮤지컬,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을 윈드 오케스트라 곡으로 접목해서 관중과 쉽게 동화되도록 하고 윈드 오케스트라 음악을 이해하고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

2014 권아름의 춤

공연정보 11. 12(수) 2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KAR dance company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억척같이 살아가고 있는 현시대의 삶속에 우리는 잠시 돌아갈 곳을 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남들과 다를 거 없이 숨가쁘게 달리고 있는 현 삶에 잠시 쉼표하나 찍어 여유를 찾고자 한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울산농요복원재연공연

공연정보 11. 15(토) 15: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농요보존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논 갈고, 물 푸고 모심기, 논매기 타작소리 옛날 추억을 담은 울산 농요 복원 재연 공연

제4회 USJ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16(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컬처인피플(주)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컬처인피플과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는 정기연주 공연

제1회 전국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개막식 및 축하공연

공연정보 11. 18(화)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상주예술 단체협의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에서 제1회 전국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이 개최 되는 시기에 맞춰 개막식과 함께 축하공연

2014 울산학춤보존회 정기공연 '춤보러가자'

공연정보 11. 18(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학춤보존회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농악의 생동하는 악기 중 괭과리, 장고, 북, 소고를 가지고 즉흥적인 시나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음악의 선율에 맞추어 아름다움과 생동감 넘치는 한국무용의 독무와 군무로 만들어내는 악·가·무 일체의 작품

제5회 김소영 민족소리원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소리비 3'

공연정보 11. 20(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김소영 민족소리원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판소리 눈대목과 퓨전곡과 창작곡을 중심으로 선보임

제1회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1(금)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창단이후 첫 번째 정기연주회를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킴

제6회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2(토)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SMI청소년 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시민과 함께 호흡하는 클래식의 향연

제4회 남성합창단 '울사내'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2(토)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남성합창단 울사내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음악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과 울산의 향토애를 고양하고자 공연수익을 울산 관내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하며 울산 테마로 한 음악을 울산시민에게 보급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Bravo my life'

공연정보 11. 23(일)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삼성정밀화학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한해를 마감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공연으로 삼성정밀화학 임직원 및 가족 그리고 지역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함께하는 음악회

제3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나눔 문화공연

공연정보 11. 23(일) 14: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화목문화예술단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재능기부로 다양한 공연을 보여 주고 그 수익금을 전달하고자 함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음악회

공연정보 11. 25(화) 10: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구립 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클래식 및 오페라 등을 통해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클래식 대중화에 앞장섬

2014년 교과서음악회

공연정보 11. 25(화)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교육청
입 장 료 무료
프로그램 각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음악활동을 하는 교원과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 으로 입상한 학생들과 함께하는 사제동행 행사로 교과서에 나오는 음악을 실제 음악으로 연주함으로써 청소년들에서 음악을 친밀하게 느끼고 감동을 느낄수 있도록 하는 공연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2014 처용 관현악단 대바람소리Ⅵ

공연정보 11. 26(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처용국악관현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국악 관현악 및 합창 협연을 통하여 울산시민 정서함양 및 국악 관현악 발전을 도모 한다.

제15회 울산 남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27(목)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여성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깊어가는 가을 밤 친숙한 가곡과 가요를 통해 계절의 정취를 느끼게 하며 울산시민이 즐기고 감동하는 합창음악을 연주하고자 함.

제18회 울산교육 문화예술제

공연정보 11. 28(금) 14: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교육청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각 급 학교 및 교육기관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교사·학부모와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학생들이 함께하는 사제동행 행사로 다양한 장르 공연

제25회 울산합창페스티벌

공연정보 11. 29(토) 13:00,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음악협회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울산지역 민간 합창단체 및 시립합창단 음악 회원들의 합창공연

제2회 울산광역시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11. 30(일)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광역시 소년소녀합창단의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가족합창 음악회

전시가이드

EXHIBITION

고덕우 도예 작품전

전시기간 11. 5(수)~11. 9(일), 5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임채일)
전시내용 도예가 고덕우의 혼을 녹여 만든 사발 및 전통 기법의 도예를 울산시민 모두와 감상할 수 있는 도예작품 50점 전시

제5회 철때반죽 정기전

전시기간 11. 4(화)~11. 9(일),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철때반죽 (김붕헌)
전시내용 철때반죽 회원들의 사진발전을 위한 단체전으로 울산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담은 사진작품 50점 전시

제18회 울산중등미술교사 작품전

전시기간 11. 5(수)~11. 9(일), 5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광역시 교육청 (김복만)
전시내용 울산중등 미술교육에 관한 다양한 연구 및 양질의 미술교육을 공급하기 위한 개인의 창작활동의 결과물인 미술, 서예, 사진 등 작품 50점 전시

전시가이드

EXHIBITION

제31회 초동미전

전시기간 11. 4(화)~11. 9(일),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초동미술회 (임길엽)
전시내용 초등학교 교사들의 모임인 초동미술회의 정기 회원전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화폭에 담은 한국화, 양화 등 25명 회원의 작품 35점 전시.

울산서예협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11(화)~11. 16(일), 6일간
전시장소 제1,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이종균)
전시내용 울산서예협회 회원 300명이 한해를 결산하는 협회정기전으로 한글, 한문, 문인화, 서각 등 다양한 서예작품 300점을 전시

울산서화 17인전

전시기간 11. 11(화)~11. 16(일),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청묵회 (유재룡)
전시내용 울선서화 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문인화 20점, 한문서예 10점, 한글서예 9점, 8폭 병풍 8점, 문인화 가리개 3점, 한문서예 액자 20점 등 80점 전시

모자이크전

전시기간 11. 17(월)~11. 21(금), 5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모자이크 (최병화)
전시내용 서울산금고 내 3개반(수채화, 유화, 서양화) 문화센터 회원들이 열정을 다해 작품화한 그림 60점 전시

제34회 울산여류작가 회원전

전시기간 11. 17(월)~11. 21(금), 5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여류작가회 (배경희)
전시내용 1987년 창립하여 울산지역에 거주하는 순수미술을 전공한 여성 미술인들의 모임으로, 섬세한 표현력과 다양한 상상력으로 표현한 회화작품 28점 전시

박명옥 염색 예술전

전시기간 11. 17(월)~11. 21(금), 5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박명옥)
전시내용 파라킨 염색과 나염을 통해 염색의 기법을 다양하게 표현한 입체적 작품을 20점 전시

제6회 경상일보 사진동우회 회원전

전시기간 11. 17(월)~11. 21(금), 5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경상일보사진동우회 (손영배)
전시내용 태화강 일백리에 스며들어 있는 역사, 문화, 인물 등을 재조명하고, 울산의 정신과 맥을 사진작품을 통하여 표현하는 사진 60점 전시

울산 · 대구 현대미술 교류전

전시기간 11. 22(토)~11. 27(목),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현대미술작가회 (양희숙)
전시내용 울산 · 대구 현대미술 교류전으로, 울산현대미술작가회와 대구현대미술가협회 회원 80명의 서양화, 동양화, 조각, 사진, 공예, 설치 등의 창작 작품 200점 전시

울산사진써클연합회 합동전

전시기간 11. 28(금)~12. 3(수), 6일간
전시장소 제1,2,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써클연합회 (최덕한)
전시내용 울산사진써클연합회 13개 써클 400명 회원들이 회원 상호간의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사진에 대한 저변확대와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동아리의 대표작품 250점 전시

제22회 울산전국사진 공모전

전시기간 11. 28(금)~12. 2(화), 5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정원섭)
전시내용 신진작가 발굴 및 사진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전국 사진공모전 작품을 공모·접수하여, 금상, 은상, 동상, 가작, 장려, 입선 등으로 구분 심사하여 입상작품 100점 전시.

11_ 대공연장

01	· 브로드웨이 42번가 11. 1(토) 15:00, 19:30
02	· 브로드웨이 42번가 11. 2(일) 14:00, 18:30
03	
04	· 제3회 울산태화강합창단 정기연주회 11. 4(화) 19:30
05	· 2014년 울산가톨릭합창단 정기연주회 11. 5(수) 20:00
06	
07	·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그리그 & 차이콥스키' 11. 7(금) 20:00
08	· 제14회 울산남구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8(토) 19:30
09	· 제11회 프리모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9(일) 19:30
10	
11	
12	
13	
14	·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자란' 11. 14(금) 20:00
15	· 시립무용단 정기공연 '자란' 11. 15(토) 17:00
16	
17	
18	· 제1회 전국 상주예술단체 페스티벌 개막식 및 축하공연 11. 18(화) 19:00
19	· 교향악단 2014 수능음악회 11. 19(수) 11:00
20	· 시립합창단 기획공연 '객원지위자 초청연주' 11. 20(목) 20:00
21	· 교향악단 2014 수능음악회 11. 21(금) 11:00
22	· 제6회 SMI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22(토) 19:30
23	· 울산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감 'Bravo my life' 11. 23(일) 19:00
24	
25	· 고3 수험생을 위한 수능음악회 11. 25(화) 10:30
26	· 2014 처용 관현악단 대바람소리Ⅵ 11. 26(수) 19:30
27	· 제15회 울산 남구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11. 27(목) 19:30
28	· 제18회 울산교육 문화예술제 11. 28(금) 14:00
29	· 제25회 울산합창페스티벌 11. 29(토) 13:00, 19:30
30	· 제2회울산광역시소년소녀 합창단 정기연주회 11. 30(일) 19:30

11_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1	· 제5회 인사운드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1(토) 19:00
02	· 김미경 '소리 콘서트 Ⅵ' 11. 2(일) 17:00
03	
04	· 울산, 그 아름다움의 향연 11. 4(화) 19:00
05	· 뒤란 11. 5(수) 19:30
06	· 김억중의 렉처콘서트 '드림하우스' 11. 6(목) 19:30
07	· 시노래투어콘서트 In 울산 울림 제11회 정기공연 '느리게 떠나는 시노래여행' 11. 7(금) 19:30
08	| 야외공연장 | · 2014 청소년 어울림마당 폐막축제 11. 8(토) 10:00
09	· 제10회 정기공연 창작노래극 '꿈이 더 필요한 세상' 11. 9(일) 16:30
10	
11	· 울산생활과학고 윈드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11. 11(화) 18:00
12	· 2014 권아름의 춤 11.12(수) 20:00
13	·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11.13(목) 20:00
14	
15	· 울산농요복원재연공연 11.15(토) 15:00
16	· 제4회 USJ 정기연주회 11. 16(일) 19:00
17	
18	· 2014 울산학춤보존회 정기공연 '춤보러가자' 11. 18(화) 19:30
19	· 뒤란 11. 19(수) 19:30
20	· 제5회 김소영 민족소리원 정기공연 소리콘서트 ' 소리비 3' 11.20(목) 19:30
21	· 제1회 울산배꽃청춘합창단 정기연주회 11. 21(금) 19:30
22	· 제4회 남성합창단 ' 울사내' 정기연주회 11. 22(토) 19:30
23	· 제3회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사랑나눔 문화공연 11. 23(일) 14:00
24	
25	· 2014년 교과서음악회 11. 25(화) 19:30 · 모닝콘서트 11. 25(화) 11:00
26	
27	
28	·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11. 28(금) 20:00
29	· 뮤지컬 빈센트 반 고흐 11. 29(토) 15:00, 19:00
3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1 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올해의 작가 개인전 – 한진숙展 11. 1(토)~11. 30(일) 30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 Ⅲ부 ~'15.1. 31(토) 115일간
02						
03						
04		· 제5회 철때반죽 정기전 11. 4(화)~11. 9(일) 6일간		· 제31회 초동미전 11. 4(화)~11. 9(일) 6일간		
05	· 고덕우 도예 작품전 11. 5(수)~11. 9(일) 5일간		· 제18회 울산중등미술 교사 작품전 11. 5(수)~11. 9(일) 5일간			
06						
07						
08						
09						
10						
11	· 울산서예협회 회원전 11. 11(화)~11. 16(일) 6일간			· 울산서화 17인전 11. 11(화)~11. 16(일) 6일간		
12						
13						
14						
15						
16						
17	· 모자이크 전 11. 17(월)~11. 21(금) 5일간	· 제34회 울산여류작가회 회원전 11. 17(월)~11. 21(금) 5일간	· 박명옥 염색 예술전 11. 17(월)~11. 21(금) 5일간	· 제6회 경상일보 사진동우회 회원전 11. 17(월)~11. 21(금) 5일간		
18						
19						
20						
21						
22	· 울산 · 대구 현대미술 교류전 11. 22(토)~11. 27(목) 6일간					
23						
24						
25						
26						
27						
28	· 울산사진써클연합회 합동전 1. 28(금)~12. 3(수) 6일간		· 제22회 울산전국사진 공모전 11. 28(금)~12. 2(화) 5일간	· 울산사진써클연합회 합동전 1. 28(금)~12. 3(수) 6일간		
29						
30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블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쉼',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 · 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 · 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 · 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or.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시립무용단
제34회 정기공연

자란 紫鸞

2014. 11. 14(금)~15일(토) 오후 8시,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